

여자농구 시계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돈다

18년 묵은 변연하 최연소 MVP 경신
기자단 투표 101표 몰표...5관왕 영예

“신인상 받을 때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통합우승 후 WNBA 재진출 고민할 것”

21살 특급 센터 박지수(21·청주 KB스타즈)가 마침내 여자프로농구 세대교체의 서막을 알렸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 중의 별로 우뚝 서며 ‘박지수 시대’의 개막을 공식화했다.

박지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만장일치로 역대 최연소 최우수선수(MVP) 영광을 안았다. 투표권자인 WKBL 출입 기자단으로부터 전체 101표를 모두 받으면서 생애 첫 MVP 수상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동시에 리바운드상과 블록상, 우수수비상 그리고 공헌도 1위에게 주어지는 윤덕주상까지 휩쓸며 5관왕으로 등극했다.

●만장일치 그리고 최연소 MVP

예상됐던 결과였다. 박지수는 데뷔 3년차를 맞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KB스타즈를 정규리그 정상으로 올려놓았다. 특히 지난 6시즌 내리 통합우승을 거뒀던 아산 우리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선봉장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일찌감치 MVP 유력후보로 꼽혔다.

기록적으로도 나무랄 곳이 없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 잠시 진출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지만, 전 경기(35게임)를 뛰며 평균 13.06득점(국내 6위), 11.11리바운드(국내 1위), 1.74블록(국내 1위)을 기록했다.

2년 전 신인왕 수상에 이어 이날 MVP까지 거머쥐는 박지수는 “신인상 받을 때처럼 오늘 역시 단상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후시 카메라에 비칠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며 몇째 웃은 뒤 “어린 나이에 이러한 상

부문	수상자	비고
MVP	박지수	기자단 선정
윤덕주상	박지수	공헌도 1위
리바운드상	박지수	11.11개(국내 1위)
블록상	박지수	1.74개(국내 1위)
우수수비상	박지수	기술위원회 선정
평균득점상	김단비	15.32득점(국내 1위)
지도상	안덕수	기자단 선정
외국인선수상	카일라 쏘트	20.69득점(전체 1위)
신인상	박지현	기자단 선정

을 받기란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트로피를 안게 돼 영광스럽다.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즐기고 싶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이번 MVP 수상은 역대 최연소 기록이다. 2001년 겨울리그 직후 변연하(당시 수원 삼성생명)가 만 20년 11개월의 나이로 MVP를 받은 바 있는데, 현재 만 20년 3개월인 박지수가 18년 묵은 기록을 깨게 됐다. 박상관 전 명지대 감독의 딸인 박지수는 “변연하 선배와 같은 나이에 상을 탔지만, 내가 생일이 늦어 최연소 MVP가 됐다. 저를 늦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웃었다.

●통합우승 그리고 WNBA

2007~2008시즌과 2009~2010시즌 만장일치 MVP였던 정선민(당시 아산 신한은행)의 뒤를 이어 역대 3번째 만장일치 MVP가 된 박지수는 이제 생애 첫 통합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댄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1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첫 발을 내디딘다.

박지수는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가 참 컸더라. 한 드라마에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떠올랐다. 우리은행의 6시즌 연속 통합우승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도 느꼈다.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서 꼭 통합우승을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박지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WNBA 재진출은 현재 고민 중이다. 아직 챔피언결정전이 남아있는 만큼 모든 시즌이 끝나고 구단과 상의하려고 한다”고 속마음을 밝혔



만장일치 그리고 역대 최연소. 21살 특급 센터 박지수(KB스타즈)가 ‘별 중의 별’로 떠올랐다. 박지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만장일치 득표를 받고 역대 최연소 MVP로 선정됐다. 밝은 미소를 띠며 벅찬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는 박지수.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다. 21살 나이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박지수는 끝으로 의젓한 각오를 말한 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WKBL 인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자프로농구를 부흥시키는 선수가 되도록 뛰겠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내가 왜 떴게?

용궁의 국빈



이덕화

●이덕화, 수입 : 한때는 연예계 1등, 지금은? 요즘 1인 방송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있는 배우 이덕화가 자신의 수입을 언급했다. 1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한 이덕화는 “한창 주인공을 맡던 시절에는 2등을 해본 적이 없다”며 “요즘은 나이가 들어 낚시 미끼 값 정도 받고 있다”고 했다. 채널A ‘도시어부’에 출연 중인 이덕화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나를 아예 낚시꾼으로 알려더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긴 물고기 밥을 어지간히 많이 주긴 하죠. 용궁 가면 국빈대접 받으실 듯.

싸라게시네어



나르샤

●나르샤, 수영복 : 브라운아이드걸스 나르샤가 인스타그램에 수영복을 입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바다를 배경으로 푸른색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다. 스스로 ‘B컷’이라고 했지만, 출력하면 바로 화보다. 나르샤는 최근 방송에서 “레몬보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르샤씨, 싸라게시네어!

속까지 아름다운 그녀



이윤진

●이윤진, 내복패션 : 배우 이범수의 아내 이윤진이 내복패션을 자랑했다.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서 이윤진은 몸매에 착 붙는 이너웨어를 입고 있다. 스트레칭을 하듯 두 다리를 쭉 뻗고 무심한 시선을 카메라를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랑하는 내 다리 짝자미”라는 글이 재미있다. 내복 입은 모습마저 아름다운 그녀. 속까지 예쁜 사람이시군요.

벤투 감독 “이강인 장기적 관찰 필요해 선발”

“팀에 도움될 최적 포지션 확인 중요
U-20 월드컵 출전엔 내가 양보해야”



파울루 벤투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과 백승호였다. 벤투 감독은 11일 파주 국가대표팀 레이닝센터에서 3월 A매치 2전전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파주 1 김준원 기자 won@donga.com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발렌시아CF)이 18세의 나이로 성인 축구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파울루 벤투(50·포르투갈)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11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3월 A매치(22일 볼리비아전·26일 콜롬비아전)에 출전할 27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이강인의 첫 대표팀 발탁이다. 최근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2001년 2월생인 이강인은 김판관(17세184일), 차기석(17세

186일), 강철(17세215일), 노정윤(17세224일), 서정원(17세325일), 김봉수(17세338일)에 이어 역대 7번째로 어린 나이

- 1 V리그 PO와 기간 겹쳐
- 2 낮 경기 광고 수요 적어
- 3 케이블 채널 적자 부담

KBO 시범경기 중계 못하는 이유

“시범경기 중계포기가 아니라 제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프로야구를 중계하는 케이블 스포츠전문채널 제작 책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KBO리그 시범경기가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시범경기는 각 팀의 전력 점검 뿐 아니라 새 시즌 흥행을 위한 마중물로도 역할이 매우 크다. 아직 쌀쌀한 날씨 탓에 시범경기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이 경기 시간이 수년째 현장 중계 방송사들에게 큰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일부에서 스포츠전문채널 컨소시엄이 최근 KBO의 뉴미디어 중계권 우선계약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각 방송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1일 현재 KBSN스포츠, MBC스포츠+, SBS스포츠 3사와 SPOTV는 제작비 부담으로 시범경기 중계영상 제작 및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8세20일)에 성인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백승호(22·지로나)도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승우(21·헬라스 베로나)도 다시 발탁되며 대표팀에는 스무살 안팎의 젊은 피로 구성된 ‘신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벤투 감독은 “둘(이강인, 백승호)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발했다.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관찰을 해왔다. 이 선수들이 주로 출전했던 경기는 스페인 2,3부리그였다”며 “대표팀에서도 융화가 잘 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강인에 대해서는 “측면에서 원포워드도 될 수 있고, 새도우 스트라이커로 중앙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발렌시아 2군에서는 주로 중앙에서 뛰었고 1군에서는 측면 포지션으로 뛰었다.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연령별 대표팀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5월에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U-20 대표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 벤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당연히 A대표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선발) 우선권이 있다. 5월에는 U-20 월드컵이 있다.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알기로는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때에는 우선권을 (U-20팀에) 줘야 한다. 다만 이번 소집 때는 우리 팀(A대표팀)에 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령별 대표팀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을 오가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N스포츠 김관호 국장은 “시범경기가 V리그 플레이오프 기간과 겹친다. 양쪽 모두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계차량 등 더 많은 준비를 임대해야 한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낮 시간에 열리는 시범경기에 대한 광고 수요가 많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시범경기 중계방송을 제작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스포츠 케이블 채널 관계자는 “프로야구 중계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비 문제로 정규시즌 중계 때 카메라 숫자를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라가 판매 대행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올 시즌이 끝나면 만료된다.

직접 현장에서 중계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케이블 스포츠전문채널은 모기업이 갖고 있는 중계권을 대행사에게 구입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높은 비용부담을 호소해 왔다. 치열한 경쟁 속 제작비도 상승했다. 결국 매 경기 2500만원 안팎 적자가 발생하는 시범경기 중계 영상제작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KBO는 새 시즌 흥행을 위해 12일 시범경기 시작 이후에도 케이블방송사와 중계 방송을 위한 의논을 이어갈 계획이다.